

鶴の聲 下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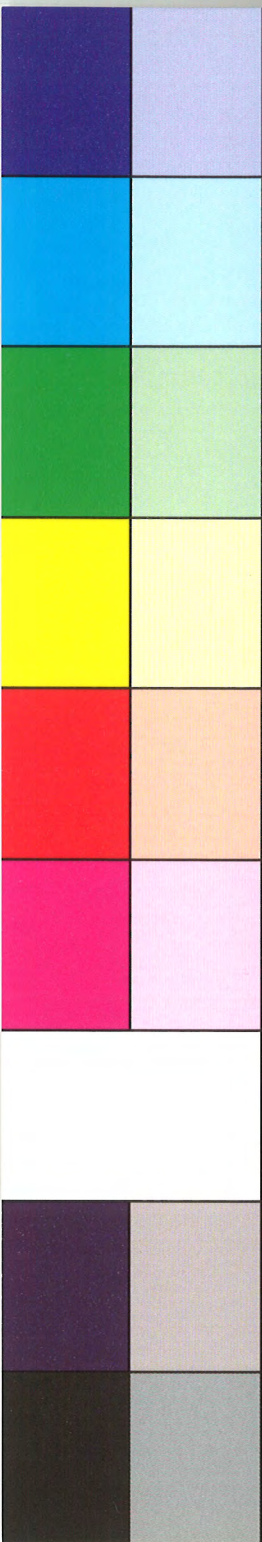
登録番号	3207
分類番号	
書番号	
圖書番号	

1914

8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8
Inches
cm

Kodak Color Control Patches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3/Color Black
© Kodak, 2007 TM: Kodak





(성 의 학)

원하



데십삼회

장々 하일은 하로가 일년갓고 티양광선이 쏘이논곳에 열도가 써을나 훈기가
충만하니 사름마다 청량세계를 원하논이셔라

스무에 분주하여 퇴를쉬일름이 업던자도 휴업일을 리용하야 소풍으로 공원
이나 운동장에 구경가고 어나공회나 사회에서 청첩이오면 교제상에 민활한
수단으로 제빚스르고 제시간에 척々디셔논디 더구나천업으로 류식지민들이
리오 기성송별연에서 청첩하논디 제집문은 발뒤축으로 닳을만하더라

시동오소스집에 경찰서류치장을 씌넛는지 장안에유명흔 천업자들은 모여드
논디 형스가압뒤에 따르지아니하엿스되 어슬넝~런다라선자가 경찰범아니
가별노업고 또한 구석에는 기성연주회를 여럿논지 아기죽~디셔논것들

登錄番	3207
類番	
書番	
圖番	

은 식주두른상에 도갓고 회스칠흔 무덤도갓더라 제흥에 못의 여셔 한밭탕구경
스거리가 싱긴다

주옥 늘어안져 수인스한후에 오소스가 제모양을 다내노라고 희색 < 흐머리
를왜밀기름으로 착달나붓치고 툭 도々라전 이마쓸를 잠스간짜프리고 풀입깃
치압싯흔입술에서 달삭흔는 말이

여러분을 청짜운것은 다름아니오라 월전에 다려온 춘파더의를 더나으리씩
셔 처가흥셔々오날은 피츠남되는날이야요 너 무섭々히셔 약간주안을 작만
흥고 여러분의게 면제흔점 전별흔점 가는일행에 덕흥야셔도 무미치안코

보닉는제게도 무정치아닌것을 표흥고저흔이올시다
하니 좌중에 밀고싸려 한마디식은 다흔다

어-노름노리중에 송별이란것은 아조자미 입는걸

허-나는 이런졸은도모지몰났지 언제다려다가 밭셔이런조흔일을흥셔요 기
싱이다 그것게만되어야할것소

회-그러면 퇴봉전별(雷逢電別)인데

오-라노름밭지안는다 흥던이가 그리되었겟다 아모렷런지 잘된일이오

아-기막혀우리는 사름갑세못가 더런분을보면 자괴지심(自愧之心)이늘잇
서

어머니는 고맙소 그교싱을 다흥며 가라쳐더런량반의 별설노보닉시니 죽어
도흔덕로가시겟소

언니는도갓소 이천흔노릇 아니흥게되었스니씩 우리는 언제나 만나보오
아님초년고싱은 관제치안아 말분이 도야야지 이곳은 사름단런흔는 풀무로

알고 아님은단 번드러갓던 금닌줄알게
더나으리를 잠스간외와도 싯싯지스랑흔싯와요 고마온일이올시다

여보게들 이흥은사름에 말한마디들어보소
사름이 한번세상에 이런일이 한두번인줄아나 우리가도막돌님으로 이야기

흥라왔나 그리흥려면 제각기집에서 은문소설책을보고잇지 주인마님말못드

러서 섭々호청과 련々호만을 위로하기는 술이 데일이니 좌붓침이나 호후에
잡이 초려노라보세

호더니 한순리호후에 장고 거문고 랑금 세피리 단소 로령산도량에
기성은착전립호고 검남무 춘후에 시도 가스 잡타령을 흙으러지게 한밤
탕노는것은 류성과 춘파의 여흥에무료로관람하게되어 류성은호호말노

내가학성신분으로 신평연구은 더러구경호였스되 기성연주회란것은 감불성
의를아니호였더니 오날은 진상을보는도다 과연소년들이 미혹호기쉽겠다
더것도전문졸업호자면 일이년히가지고는 제법가락이 척々맛지못호겠는
티내가어디셔연설드른 생각이난다 초라리동곡호는 집에는갈지언정연
락호는자리에는 안짜말나 호던말이 춤을도다 자고로 가무(歌舞)로질거
호던자들이다 실패호였겠다
내가오날경험이 적지안도다
호고 춘파는속으로

나다려더노릇을 호라고호였지 술잔들고호는소리야 상에소리로만들닌다
더자들의치고 부는것이야 죄지고잡혀가셔미맛고 입으로잘못혔다 부는
말소리갓고나 더년들 가랑머리이죽 / 그모양으로 거러다니면 싸은세지
々안킷다 두팔은 웨더리버리셔 밤난누구를 안쇼지니려고 손목은 공중
난나 셋닥 々々흔들며 뇌을셈치려고 왓싸갓싸호셔 더노릇도 제정신가지고
야 엇지호리 오날은 내압혜셔 아모런티도 관계치안라 더셀은 마자막본다
호고잇더니 그자들이 뇌중에는 헛튼거리에 왓썩짓겠다가 다헤여져가고
기성들이 춘파를향호야 제량심에서 나오는티로

우리가 이런이별은 깃분일이야 눈물덜셔둡업셔 어셔가셔잘살아 이거시
약소호지마는 정표로밧아

이번가면 언제올셔 우리다시 만나볼셔 잇고보면 무식홀겠 이것이벤々치
안으나 셔로아던정으로 괴렘숨아두지
악가는우리가 호반니로되 인제는 귀부인이오

천후덕셔 귀히된증거습아 이피물을 밧아두오 평안이가셔서 리々편안호
 오이것으로 로슈(路需)에붓히쓰오
 또만남시다 하-하부티 또붓시다 하-하이만것이 디단치안처마는 두엇다
 쓰시오하-하

할며 이모양으로 예셔도주고 제셔도되듯는것을 오소스는 주엄々々거두위식
 궤에다착々 너어한엮해다 스프를밀어 두더라

이씨에는 춘파가 마지막인스를훈다

여러분 언니씨셔 저만사람을 이다지못이져 앓쳐렴정표를 주셔니 감스만
 사이오며 말씀마다제께 축스하시니 저는형복누릴줄을 스스로밧고잇겟습니
 다마는 언니여러분도 어셔선량호 영업을호셔々부인사회에 모범적이되
 시기를바랍나다 제가답스할것은 다만 이것뿐이올시다

하니 기성들이일제히 간々되소호며 「이것은 제법연설하는 마당갓치축스이니
 답스이니호네춘파는 학교출신이니셔 저리호지우리네야 이다음에 키명부인

이되여부인연회에 참석호여 기성들거지호면 보논이들이 「미우우슬터이지」호
 며된말아니된말호는동안 어슈산호게 세뫼터라

이우고 석양이되여셔 춘파가 횡장을 슈습호여 종로로나와 울며불며작별호고
 마포항이라 궤단전츄를타고 한양공원을바라보니슬문회포가다시나고 시동
 을도라보니 시원접々호는정이념두에 거져잇다 쟁々쟁々호더니 전츄셔나논바
 람에 손짓만호고 야주키지날씨에 절치부심호던일은 한조각갈집에다 셔려넛
 코셔덕문밧글썩나가니 신흔려행(新婚禮行)에 강구경이 절노되엿더라

데십스회

시동셔 썩는기전에 풍덕석골가는 로딩기를 디호야 의론홀씨 경의철도기츠
 로가즈면장단역에서는 오십리오 키성역에서도 스십리라 강에서 비라고나려
 가면 조강나루터에서 머지안넛코로 숨기로나온 일이다라 토정리 싹판주인
 집으로츠져가셔 물뼉를 기다리누라고 종용호키방에 드러의론훈다

(류) 싹훈스정이잇는디 슈중에돈한분이업스니 별슈업시 풍덕나려가셔 취히

줄밧게

(춘) 선가는 넘어마시오 제게 그만돈은 있습니다

(류) 또러비도잇슬러인디

(춘) 그러면 돈십원이면 될싯하여요

항더니 손에 들엇던 지갑속에서 오원짜리 지전두장을 뇌주며

(춘) 로슈는 이만하면 과히부족지안습닛가 우리가 지금즉나려가 딛으므로드

러가갓습닛가

(류) 글세우리가 친척셔 너무엄절하시닌선 엇지하면 도홀는지 료량이아즉나
서지아니호닐

(춘) 그러할싯싯하오만은 도흔도리가업셔요

(류) 그리도 우리집으로 갈슈밧게업셔

(춘) 그근방에 딛쳐가 업습닛가

(류) 잇셔 풍덕편으로는 령정포(領井浦)가잇고 동진편으로 조강(祖江)이잇

고 강화편으로 월곳(月串)이잇지

(춘) 그세곳에 인정풍도가 다잇더호가요

(류) 령정포는 어촌(漁村)이자우리집에서 멀지아니하야 잠시라도 우거홀슈
업고 조강은 나루(津)가되여 리인거익이 만타호되 료선괴츄같이 동홀후
로촌락이조잔호고 료동에술난봉이 왔다갓다하나 이근련에 경찰이 엄말
함으로 츄츄종용하야 조심하느모양이잇스나 가거쳐가아니오 월곳은제법
항구갓하보이지 셔올인항동홀목시라 료선도딛이고 술도품이되여 올라가
논비나려가논비 너머오는비들이 다머무르게되여 조석물씩마다 부상딛
고며 뇌외국인이 오르고나리며 물화가변창호고 성문안에는남녀소학교가
잇셔신스와 귀부인들이 신스상신스업을 언론호고 또 정치로말호자면 죠
히루(朝海樓)남편으로장성이 느러닷코안에는 기름진들이 열닌곳에 무장
디가들은々々잇고 강도팔경에 데일되는 연미정(鸞尾亭)은간상으로돌
출호곳이라 습각삼은 동으로바라보이고 머서리섬에서 물이셔남으로갈

너지며 비구(白鳩)들이늘떠도니
 삼산반락청련외(三山半落靑天外) 오이
 수중분벽로주(二水中分白鷺洲)라
 리터벽이노던봉황터가 연미정에지날
 것은업슬터이라 또강화음이 심리썸되어
 과연명승지더라 구경도할만하
 고살만도하지

(춘)그런말씀하시니 이번에 월곳으로가서
 잠산찬우거하고 나으리만되
 에먼저가서부모씩이실죽고하여
 노하시더라도 효로써극간하여
 깃버
 향사용날을만할승시하여
 도라가효양하는것이
 도할뜻함이다

(류)되여가는데로할일이었다
 그러나 자금지시하여
 나으리々々하지마오
 나는 아즉관임덕우도못밧았소
 날다려가장이라하고
 또 그전일후터로
 춘
 희부인이라
 흥갯소

(춘)죄송함을사다
 과분한덕우를
 잊지밧아요

(류)여보별말마오
 문명시덕에는
 남너동등덕우원다

(춘)제쳐다가
 천한것도
 될수잇슴닛가

(류)허々그자리에서
 떠나면
 고만이지
 츠々이야기
 흡사다

하고나아가
 삼판한책을
 선가오원에
 독선하는
 덕
 경찰관리의
 취도가
 밝은것
 은
 비마다십인승(十人乘)이십인승
 승십인승이라
 제한호외에
 더실지못하는
 법
 이오
 비떠날씨에
 일々히검스하고
 승객의주소써
 명과
 도박홀디
 명을
 분명히
 기록하고
 모년월일에
 스공아모々々가
 떠나간
 줄노
 적어
 덕
 춘
 케
 하
 더
 라

그날오후닐
 곱시에
 로정리에
 서
 비가
 떠나는데
 련
 강
 좌우에
 서
 려
 연
 기는
 물
 낮
 해
 없
 케
 스
 는
 터
 두
 언
 덕
 비
 사에
 장
 오
 고
 가
 는
 사
 름
 들은
 서
 로
 불
 너
 이
 야
 기
 하고
 첩
 첩
 들
 어
 진
 비
 들
 나
 무
 가
 지
 는
 달
 빛
 해
 곱
 보
 인
 다
 만
 경
 창
 파
 흐
 르
 는
 우
 해
 억
 이
 었
 초
 로
 저
 어
 라
 양
 화
 도
 선
 류
 봉
 을
 열
 는
 도
 라
 월
 백
 풍
 청(月白風淸)가
 는
 비
 에
 류
 세
 청
 이
 동
 부
 인
 향
 여
 적
 연
 무
 문
 잠
 만
 자
 라
 춘
 희
 를
 도
 라
 보
 며
 하는
 말
 이

여보강경(江景)이
 덕
 우
 톱
 소
 맘
 이
 희
 창
 호
 데
 창
 가
 (唱歌)한
 번
 향
 여
 복
 사
 다
 나
 는
 잘
 못
 향
 지
 마
 는
 부
 인
 의
 창
 가
 듯
 자
 고

또스공을
 도라보며

스공 더분들도 월곳산다니가 학도창가를 드러슬 뜻하오
 여보이비에는 속괴(俗忌)하지안소 옛던무식흔 비스사름들은 이야기
 소리를 못하게하고 회스바름을 절괴합디다그려
 스공들이 하는말이

네-네창가 참똥습니다 우리네아들들도다 학교에다니논디 학도가이니 석시
 가이니하와요

우리곳에는 비-놈들도 학도하는소리를 흘담니다 속괴란것은 어리석은일
 이지오 별々소리나는 룬선은 도모지단닐수업게요 우리비에는 그싸위어림
 업는속괴업셔요

하거늘 세창이 하는말이「가마니잇자박즈(撲子)를 잇즌듯하다 음묘논 이러하
 겐다」

학도야々々창년학도야

벽상에패종을드러보시오

한소리두소리가고못오니
 인성에빅년가기쥬마갓도다
 동원출산에방초록음도
 서풍추련에황엽삽고나
 제군은청춘소년자랑마시오
 어언잔명경빅발가셔하리라
 부른후에「나는고만두갓소 부인의창가 드러봅시다」하니 춘희가 석시가(惜時
 歌)를 련다라흔다

세월이류슈갓하야

살갓치치나네

광음이나를위하야

지레기만무근세

오날을한번보디면

또다시 못오네
금보다 귀흔 제월을

착실히 악기세

부르니 상청으로 드러마시는 소리에는 흐르던 강물이 거스르는 듯 하청으로 구
을녀 너머가는 바람에 강변에 버들잎이 한들~하는 듯 공의중에 음파(音波)
가 밋치는 곳에 사람의 귀를 놀닐만하더라 류성은 제 흥을 못이이여 박장갈치하
더라

이날 밤물에 김포운양사지와 서미일물이 오르는 고로강변에 다더니 고밤을 지니더라

데심오희

더쳐노리란것은 부르는자의 상상도다 르고듯는자의 귀도 갖지안케스다
유래흔노리는곡도가 화장하고 감탄하는 소리는 곡도도 비창하며 즐거운자가
들으면 흥치가나고 슬픈자가 들으면 우름이나온다
소리나는곳을 알고져도하고 그사도도 못고져하는것은 보통인정이라

춘희의창가에 의운(疑雲)이니러나물은 하늘을 가리니 한조각 밝은 달이 흑암동
중에 드러스니 그비뒤에 무슴악의물(惡礙物)이 달녀왔노

이밤에 내려오는 물에 흥쥬셔브터 뒤싸라오던비에서 일리소년이 압해가는비
에 녀청창가를 듯고 마암에이상이녀이면서 운양강변에서 또흔 밤을지닐후에
잇흔날아침에 선인다려무러뒤강안후에 비를써여그것헤타이고 비우혜셔 방황
하더니 밤사장속으로 청년이나오는것을 보고유심히 보며무슨말을 붓치려하
는디 눈스결에 얼는보니 절타가인이 그안에셔녀이다 보는눈스살에 전신이
앗득흔저라 소년이 청년을 향하야 인스를청하다

(소년)여보이로형 소리업시지면하자는것은 실례을시다마는 피츠업시다

(청년)네!

하고 명첩한장을 쓰니여들고 비스삼각가히셔사 을니며「본인은 풍덕동면셔
골사는 류세청이을시다」하니 소년이 명첩을 밧아경례흔후에 또명첩을쥬며
「이사름은 충청도홍유니포사는 손종일이을시다」흔후에 련타여슈작하다

(류) 기운엇더하시오

(손) 런히티평하시오

(류) 어더로가시느지요

(손) 고향으로 내려감나다마는 류형은 지금어더로가시오

(류) 본인도 고향으로 갑니다

(손) 오날아참이 음녕하고 공의가 비습흔데

항며 도라보니 흘업이 서북풍이 더작하며 물스결이 뛰놀거늘 마암에 흘흔계

를 생각하고 류성을도라보며

(손) 풍과중에 비질할슈업겟다 이좁은 강안이 々러흘진디 더슴도품만 떠러

지면 엇지할슈업겟소 자! 아우리 더쥬막에 잠잠가서 술한잔식 난을시다

(류) 본인의게 항념하시느것은 감스옵니다마는 비를비일슈업셔 못가오니 용서하시오

(손) 마안하시겟습니다마는 선인의게 분별하시고 잠스간갓다옵시다 본인도

역시장황설화하며히소일을못겟소

(류) 손형이 일면여구로청하시느 정을막느것은 본이아니니 그리옵시다

항고방스장을드려다보며무슨분별을할후에싸라셔쥬막으로드러가니손가의음흥

함을엇지알니요

손종일은 원리호화조제로 쥬석에침혹하여 부랑죄류가된고로 그곳경찰관리의

취도로흘출하여 무직권(無職券)을취여류치장에두엇 싸가공로제초(公路除草)

도식하고증역군갓치셔을고왔다 갓다 항는고로 경찰취도나면 항려고 식처로

선상(船商)영업흔다고 그곳셔물화들시을쇼 경감에올나와리히는불계하고 방

미흔후도라가느길에 식다른계집집을보고 음육이치미러 농락슈단을부리는판

이라

운양은자리로동진김포사람들이 슈로로셔을을 가자면 아모셔라도 이포구로

오면올나가느비가잇슴으로 미일져즈거리갓하야 집은만치아니하야도 변화흔

(류) 기운엇더하시오

(손) 런히티평하시오

(류) 어더로가시느지요

(손) 고향으로 내려감나다마는 류형은 지금어더로가시오

(류) 본인도 고향으로 갑니다

(손) 오날아참이 음녕하고 공의가 비습흔데

항며 도라보니 흘업이 서북풍이 더작하며 물스결이 뛰놀거늘 마암에 흘흔계

를 생각하고 류성을도라보며

(손) 풍과중에 비질할슈업겟다 이좁은 강안이 々러흘진디 더슴도품만 떠러

지면 엇지할슈업겟소 자! 아우리 더쥬막에 잠잠가서 술한잔식 난을시다

(류) 본인의게 항념하시느것은 감스옵니다마는 비를비일슈업셔 못가오니 용서하시오

(손) 마안하시겟습니다마는 선인의게 분별하시고 잠스간갓다옵시다 본인도

역시장황설화하며히소일을못겟소

(류) 손형이 일면여구로청하시느 정을막느것은 본이아니니 그리옵시다

항고방스장을드려다보며무슨분별을할후에싸라셔쥬막으로드러가니손가의음흥

함을엇지알니요

손종일은 원리호화조제로 쥬석에침혹하여 부랑죄류가된고로 그곳경찰관리의

취도로흘출하여 무직권(無職券)을취여류치장에두엇 싸가공로제초(公路除草)

도식하고증역군갓치셔을고왔다 갓다 항는고로 경찰취도나면 항려고 식처로

선상(船商)영업흔다고 그곳셔물화들시을쇼 경감에올나와리히는불계하고 방

미흔후도라가느길에 식다른계집집을보고 음육이치미러 농락슈단을부리는판

이라

운양은자리로동진김포사람들이 슈로로셔을을 가자면 아모셔라도 이포구로

오면올나가느비가잇슴으로 미일져즈거리갓하야 집은만치아니하야도 변화흔

그런고로 주막도 제법정비하고 음식도 써뒀고 관인신사의 형차라던지 보부
상수님이던지 청구하는디로 슈응하더라

이날아침에 손가々주막에 드리종옥환방에서 탁주약주 소주를껏드려일 이슴
빚을권크니 자크너 귀가혹스々々 혜삿이축々할후에 슈작을쓰러넨다

(손)술이란것은 장과제하는데는 데일이야

(류)그러하기에 약에도주정(酒精)이혼나들지

(손)그런데 이근리연설가에서 술이사람의게 히로오니 먹지말나 하는소리 나
는듯기시려

(류)그는침혹하여피가망신하는 근원을막으려나서

(손)사름교제상에는 필요하고 소견법에도 흥치가있는걸

(류)허々나는 소경력이있서 죄에중미는 술이던데

(손)오-그야 다시말할것업지 식에빠지는것도시초는술이지 그러나 친구의게
무를말이잇는디 엇지알는지

(류)남자의 일이란것은 활발하여야지 가려두고괴일것이 무엇이람 그리무슨
말이나

(손)응- 츄々말하지

하더니 안주가라듯코 또 소닉기술노련겹허 솜스비흔후에 주담비스시

(손)어제밤에 류형이라고 오던비에서 창가하던 녀인이늬나

(류)그말뜻기가 그리어려우나 막말로늬게집일다 네좀구경하겹너

(손)정실부인인가

(류)정실이면 엇저구 아니면엇더란말이나

(손)그러면별실이지 잘논다 아마시하정지면 어려움을모양인데

(류)안치받갓치할것 업시 단치집모양인데 과연구경하(具慶下)에심히난흔스

정어잇네

(손)좌우간 자초지종을 드러보세 그러

(류)티강이야기하지 나도 어정정할일이라서 이모양일세

하고 장단 박학산뒤에서 만나던 광경이며 남티 문역에서 인스티답못하고 헤여졌더니 그 후에 악소년의게 쓰을녀 기성방에 가서 그녀즈를 만나 슈작하다가 거절하고나오는디 자결하려하는것을 만류하고 마지못하여 허락하고 속신하여나올찌에 그가 먼저 반익을 준고로 친구의 게도 절반돈을 취하여 죽근네고 지금집으로 내려가는디 그와의논할즉 자그는강화월곳에두고 나만먼저집에 가서 부모씩죽고하고 극간하여 용납할만할후에 갖치도라가 자고던말이며 기세양난흔 말씩지 설과하니 손가가 간교흔수단을부리라고 홀연히슬픈괴적을보이며 희사탄식하며 무슴말을하러다 멈추고 또말씩하되다가 고만두거늘 류성도 서을서떠나오는 길에답사흔스덩을 누구다려 의론흔번못해보고 로수돈십원에서절반은괴위쓰지라 술을먹으면서도 등에설진니 갖하 항상새림하던츠에 손가의 이상흔상티를보고 밧씩달나부터 흥는말이「형이 친구의게 무슨척말이잇던지 권면할일이잇스면 티경티법으로 말할일이지 또죽을말이라도 핵히바려야 속이 시원하지 더다지 망서릴것이 무엇잇서

오—라계집말썸치니사 친구의게티하여 말하기씩히서 그리하지 흥히물업네」하거늘 손가의티답이「형의게몇가지 무를말이잇서」하고 룬리에당 연하고 소리 에적합흔티로 문답한다

(손) 형이 더녀인을 다리고 가면 댁에서 즐겨드리시사

(류) 글세 우리가 친척서 엄절하시니선

(손) 그러면 댁에서 용납지못하고 어티로가나

(류) 악가 말파 갖치 위션 강화월곳으로갈는지

(손) 더녀인이 그곳에아는사람이나 업스사

(류) 그도물나

(손) 형브터 댁에가라하더라지

(류) 그리히

(손) 그러면 니가형을 위하여 말할터인디하고 순서있게 충고하는말이

사람이 압뒤를 헤아리지아니하고쳐스하는 것은 불가흔지라 더녀인을다리

고 이번엔 못먹으로 드러가면 임부형이 필연코 용납하지 아니하고 너쫓출넘녀
 가 업지 못하고 그의게 도자비가 업슬터이니 그 말대로 월곳가서 열마 동안 잇스
 면 형이 면져 도라가 호로써 부모의 몸을 깃부시게 후후에 허락을 기다려 맥으
 로 흠씩 가는 것이 만전흔 계획이라
 디져부즈의 은의가 지중하거늘 만일 안히로 인하야 불효하고 식으로 인하야
 피가 하면 친구들도 절교 할 것이오 사회에서도 비척하리나 무슨 면목으로 이
 세상에 서리요 아모 조록 일백형실에 근원되는 효를 이져바리지 마오
 하고련 연히 쓴 말을 하려하거늘 류성이 스레하느말이

손형이 이놈의 모식흔 맘을 잊처럼 여려주시니 감스 무다 하와다

하고 정신을 차리니 취하엿던 술이 번쩍서 여서로 작별하고 비로도라 왔더라

예심륙회

츨희는 운양강변에 디인비스간에 서 아참브러 만석양사지바름 소리를 귀가 솔
 띠드르며 서고 디하디니 류성의 도라움을 보고 반겨마즈며「오날히 가는 줄을 모르

고 노섯소」하니 코로 디 답하고 방스장안에 누어 장우 단탄(長吁短歎)음을 마지 안
 커늘 심분경아하 여 닥어 안즈며「어디가 압흐시닛가 도치 못흔 괴별을 드렸습닛가
 불쾌흔 일을 당하섯습닛가」하고 또 다시 도리 잇게 디답이나 오도록 련다라 말이
 나온다

(츨) 비외간에 성스를 갖치 할터 인디 가려들 말이 어디 잇셔요

(류)

(츨) 갑사히 그리하심닛가 비스길에 사람의 맘티로 하기 어렵지요 이 세상도 고히

풍파 라오

(류)

(츨) 그러하시면 공동성활상에 디하야 류감이 되지요 비로 말하더라도 남은 풍파
 중에도 룬션으로 무려 하디니는 디 우리는 좁은 강안에서 이만 바람에 썸씩 못
 하느 것이 분하셔사 괴탄하시오 그 썸만안이라 세상에 싹흔 일이 허다 분하셔시오

(류) 응— 흥

(춘) 제게 티흐 걱정이 잇셔 그리흐시오
(류) 걱정이 아니라 북그러운일이요

(춘) 무슨일인지말씀하시요 죽금도 미안한것이엿습니다

(류) 어제의문뒤로 이제월곳가면 돈이잇셔야지 제스집이라도 엿어 들고 엿지
흐던지흐러인티

(춘) 그곳에가기만 흐면또 변동홀도리가잇슬터이지요 물떡나되엿나무러보시오
흐고잇더니 한이식홀여 풍정랑식(風靜浪息)흐고달뜨자물참이져서 사공들이
「어이제는 비질호세」호며비를 쟈여나려노와등진봉상리 휘실지나 교하슈막
압흐로숨도품도라셔니

장단골스로나려오는비올나가다가 섯는비셔로불너「어티비올나 어이강화월곳
비올세 무엇시렸습나 흥인시렸습네」호고압뒤에서질겅々々호는것이 신기도호
고 또한편으로 구슬프기도 호더라 류싱니외가 방스장둑정을밀고 니려셔어
티가어티인지셔로 문답한다

(춘) 여기는 티단히넓은데요

(류) 허허 예셔더나려가보면 하품을결 세계지도못보앗소 티평양티셔양인도양
갓흔데도 잇는티 이셔진좁은 귀안을보고

(춘) 이비가 더산밧호로 작구드러가는티 쥘니지 아니호는것이 이상호저호

(류) 어이즘 산그림즈가 물에겨구로빗취여 그러치 예도히금강이잇는줄아호

(춘) 그럴킬니 녀편너소견이지호 또 더기는누가불켜들고 이리로와호

(류) 흥이더편안덕주막집에 불권티로이비가가는거요

(춘) 월곳이 아즉머릿지호

(류) 가마니잇자가남집허보아야지 더조강은 밧셔지나고 더거무스름호거이바
로 머사리섬인즉 왼손편으로 강령포이니가 그골스로 종로셔 남티문가기
만치나려가면 월곳이호

(춘) 어셔갓싸가 티엿스면

(류) 참으니만치또참아 밤이드니가 션션호데

항고도로방사장안으로 안저밤에나틸준비를 항누라니 이것더것살펴보며 항
 장을미단단히 츠리고 잇더니스공들이「똥뚝코저어라선창 머리로곳 드러디이
 세」항거늘 반겨너여다보니 달빛해소랑소랑하는 금물결은 비스슴을흔들고 성
 밋해 웃듯웃듯귀주집은 선창까지 련항얏는디 등불빛치휘황하여 불야성(不夜
 城)을일우웠고 리인거기들은료리집 상점에들고나니 디도회중야시가(夜市街)
 가여괴로다항장을 수습하여 언덕에올나스공의인도로 녀관에드러 밤을지니고
 그잇흔날 아참에류성의 뇌외가의론한다

「이곳에본리아는 사람은업는디 뉘게동정을항나

「성명부지라도 세집엇기야 무엇어렵겟습닛가

「흥덕관절돈이 잇셔야지

「예—그만돈은 잇서요 세집이던지 곳살집이라도 잇는지여관주인에게 문의

항서요

항고 손사가방에서 지전벽원을뇌여 주거늘 류성이박아척척접어 지갑에너흔

후에박그로 나아가 여관주인을 청항야수작한다

(류)여보주인 본인이 청항일이잇소

(주인)네—무슨말씀이오

(류)이곳에서 세스집이나 혹아조살집이나는것이잇소

(주)서울이나 또다른디쳐처럼 집거간은 안니오

마는우리월곳판에는 다알수잇지오

(류)그러항실뜻항오 시방이라도 주선히주오

(주)네—네

항며아리우홀 싹홀러보고 또방도 기웃히보더니

(주)어제밤키도기(客到記)를 보아도서울셔오신줄암니다 맞참조흔집이잇소바

로히조류문으로 드러가려면 성밋흐로 잇는집이방미홀 것이오 또좌쳐도씩

똥소

(류)네—좌쳐가 었더탄말씀이오

(주) 선창에 단큰길가요 이왕주막영업하던집이니가 뚫탄말이오
 (류) 여보 우리는 그런집소용업소 내가드르니가 월곳이미우 얼녜다더니 사람
 을이렇게몰나보오

(주) 바른말이지 기명히다구하원다 이곳이 이상하저오 댁같은 분들이 종갓이
 려소청하디다

(류) 나를엇지알고 호는말이오

(주) 허허 웨이리는취하려고호오딕은 난봉학도요갓치오신 녀인은 한달에
 토요일마다 경찰의원의게 검스맛는듯하데.....

월전에도한 작자 살다갓소

선은이러코 후는더러타 호지법들이붉은시디에 누가인권침히(人權侵害)할
 나구

(류) 과연안목이뵈소그러 본인은 학교출신이고 부인도 학교출신인디 천히보
 앓소

(주) 이분녀학도출신을 내가몰나보겟소 첫지의복이 틀이는것이수고고 른
 흥것으로 아니호고사박흥것으로 밍시만잇게 지어입엇는디

(류) 자기손으로 흥것니아니오 사주어지은것이 그러소

어이위선의복브러 가라입어야호겟군 하마흥들봉용흥변호였지 내가이곳에
 얼마동안살터이니가 초갓근밋흥알터이오 성문안 학교근처에 살집이업겟소
 (주) 그러면집갑도 예보다흥호오 집이잇다뿐이오 우리잘흥성히복시다

호고왔다가다하더니 바로학교업해 여덜간초기집을 지화팔십원에절가호여사
 서거접흥치수십일이되누라니 류씨는 초갓신스들과상종호게 되고춘희도기명
 부인들과교제하니 과연어진마을에셋다은리웃이라 의복음식이 형제저 위성
 상에적당케되며 부갓간정의가더할수업스나 한갓류감되는 것이 잇서 죄송하
 더니 하로는

「우리저변 의론되로 나브터근너가부모씩 엇줍고 허락을기다리겟소

「그렇습니다 오날이라도 가셔갓아모도록 부모님의 맘을기부시게흥후 쏘근

너오셔々 합씨가도록 흥시오 제념려는마시고
 「그러면오날저녁물에근너가서 형편을보아종々편지도 할러이오 또속히근너
 가도록 흥빛게업소

(예-) 부모압에가는 인스가 봉천할 것이업스면 미안할지오
 흥고지전오원을유며 「부모의식승에맞출만 흥식료품으로 사가시오」 흥거늘 류
 성이맘에감란흥을 마지아니흥고 다만말이 「감스흥일이오」 흥후에 준비흥여 그
 날저녁물에 흥덕령정포 로근너오더라

데심철회

이씨월곳에 신스들이 선창에나와 류성의귀녕(歸寧)흥을전송흥며 또속히만나
 기를당부흥고 도라셔 드러올즈음에 성문안으로 웬청년이나오다가 류성의부
 인을보고도로싸라셔며 「이것웬일이야 예셔만나기는 천만의외인디... 왜나를
 모르는데흥서 시동셔수초노랏지 싯침이를뚝싸네 사람은 숨어못살아」 흥고 또
 머이라々 흥나 춘희는 성씨갓흔 육을당흥디 곳도라셔 썩짓고갈것이로되잠々
 허자그집문안에드러셔 며도라보니 싸라오던자가 싯멈추어섰다가도라셔며 「그
 만흥면알아먹지티는여전흥고나」 흥며가거늘 관광자들이

흥은 오-인제알겅군 꺾녀도시동기성출신이엇다

흥은 그러티리도관계잇나 제법즈음잔흥집싯갓히보이논디

흥은 학문도 잇데마는 한달이지나지아니흥야정든님이썩초단녀셔 안되엇지
 흥은 짜-아막시다 그친구를 사피여늘다가 더런일을보고 의로공론흥는 것
 이불가흥오 흥고흥일이잇스면 흥고흥고듯지아니흥면 그만둘것이완다

흥더라 그청년은 별사름이아니라 김포운양셔 류성과초면으로 주막에드러가술
 먹여취흥후에 그속을썩아무러게집의 리력서지알고 외면으로는 류성의스정은
 헤아려권면흥는데흥고 녀념에그게집을 썩돌닐흥게를싱각흥나졸디에 괴모게
 가업셔그날밤물에 뒤썩초오며 썩런구히본다

어-원동히라더게집을 늦치고 엇지흥노

흥-류가그작자가돈에열이난 모양이던데 그당석에서 돈주고 게집을가로찾

더면 또할걸

음—그도아니되지 그게집이 돈이너스흔듯히

또정은색 드렸서

예—라 너천거름에 쌀니쑈초가싸아서 설고나리갈가

허—큰일만나게 잊지면똥탄말닌가 그리 계척이업스가

올타될수잇겠다 슬금어니 뒤싸라가서 지는자리나알고 이렛케—
항면제

아모리 정이첫셔갓더라도 아니찌러절수업지

항고그밤에월곳와서 밤을지닐후에 류성의 거접하는것을 은근히탐지한후에인

항으로나려가 유명흔쑈장이할멈을 초저가보고 수인스흔후에

「여보청할말이잇는디 듯겠소

「무슨말씀인지 흡시오 할수만잇는일이면 헛드리시오

「응—그만항면 눈치는 처겠소 계집일이오 별수단을써서라도 성스만항면수

공은너가알아 줄터이오

「계집일—어디요 속니평을디강말씀하시면 될는지아니될는지는 미리말할
수업고제힘껏히보겠습니다

「그러면 잔주닐것업시 요점만싸서말할것이니 자세드러보구료

「예—예

「우리네와달나 이야기듯는가온디무슨료량이나서겠지 계집의티성은 시골인
디 청년과부로셔을학교에공부하라 왔다가길을잘못드러 시동기성이되였다가
그전브러잇지못하던 남즈를 만나속신하여 그남편의 집으로도라갈터인디 그
작자싼은풍덕 류의관의지제로셔셔을학교에다나다가 그모양이고 또는그부
형이엄절흔디뒤에 시방월곳와서잇스며 류가스먼저자괴집에가셔 부모의맘을
깃부시게한다 또엇지한다 항는말을 니귀로 드렸스즉 아마몇날이 되지못하
야계집흔곳잇슬모양이고 이사름에 속종싼은엇지하던지 그게집을써서 살작
정인디 월곳판에는그런수단잇는 마누라가 업슬뜻하기에 오날당신을차져왔
소어디계척을 드러봅시다 또다른구청할것이 잇거든가두려지말고 곳말시오

「그러면 나와 갖치 올라가서々수시변통(隨時變通)을 흉시다 제법즈음잔흔히
 세를 하여야 할터이오 나으리씩서는 강화읍너잇서 하로 한번씩 더잇는근
 처에와서 성스하도록 허복시다 서로만날쳐소는 연미정이 데일도와요
 「자아 이물에 올라갑시다

하교월곳으로 올라와 류가의집 자리를할멈의게 알녀주고 손가는 강화읍으로
 드러와 려관에서류하며 날마다 월곳연미정으로 나다니며 흥계를 읊니다가류
 가가풍덕본가에 가는것을보고 썩장이 할멈의게척으로 싱쎄갓흔수쎄을벗치
 러흔이러라

그전에 썩장이할멈이 월곳와서 그전보더친흔 로파의집에서은근 히류하며후
 녀학교를 츠져가셔녀즈교육에 열심이나잇는듯시 련필단 공척권도기부하고
 말솜사시는잇고 또드른귀라 녀즈를교육을잘하여야 할것다는 언론도하니모다
 귀부인으로알고 그본적은 몰났더라 그리하누라니 조고만흔 바닥에 신스상가
 전부인들은 모다기명부인에게 로성흔뒤우를하니 춘희도녀학교에 찬성이적

지안코 또인항부인의 열심을흉모하여 치하도하고차기집으로청히뒤접하누라
 니 친속흔모양이라 하로두번씩만나 정이상통하더니 할멈이 류성 풍덕감을
 보고손가를 식혀춘희의게 육설을하여 여러사람이 의심스럽게하고 그잇흔날
 연미정에서 손가와 갖치게척을말하다

(할멈)인제는 될수잇소
 (손가)슈는무슨 슈란말이오 속시원하게말하오

(할)지금은 그계집흔즈잇지 아니하겠소
 (손)그렇치또

(할)이곳사람들이 이제그모양을 하는것을 의심할것이오또나와속친하구료그
 러니사 될슈 잇단말이지

(손)이암해 될말만하구료

(할)그계집의 말을드른니사 류가가 편지를종々하리라 흡디다 근너온다는날
 을알아 동기할터이니 낮에오더라도 내말되로하고 밤에오더라도 내말되로

한면 썩되지

(손)내말이라니 드러봅시다

(할)가마니잇자 누가듯지나 아니한사 비밀히말한여야 홀터인디

한더니 좌우를회들너본후에 손가의귀에입을디이고 머이라머이라하니손가의
디답이

「응—그리기는 어렵지안치마는 그늬핑이가 내바리사 또그뒤에는 할법이엇
지한던지내게로.....」

한머입이썩버러지며 너럴우슴을하고 헤여졌더라

데십팔회

세상에갑사흔것은 사름기다리이라 류싱이그본집에근너간후에춘희는하로가
슴추갓치기다리더니 하로는 편지한장이 우레로왔거늘 반겨써여보니한옛스되
일전에 무스히 근너와부모의그데안녕하심을외오니 형이오나 가친씨셔엄절
히부지시니 하정을상달할여가 업셔죄송한중 좌스우량한여도 용납할도리가

업슬뿐만아니라 서울셔우리만나던일을 려々히닐너밧천이가잇셔 즈식되나
는 불효로아시고 춘희씨는 천흔계집으로아서사 과연구슴말슴으로 문벌을
드레는즈식이니 그런며나리는내집에 드리지아니하리라하시니 현상으로는
우리너와가 부모압헤셔 효양할슈업슬듯하고 또그디에춘희흔즈 잇스라할슈
업기로 금일이십일에 단딩코근너갈터이니 그리알고 이사름의 처신불급을
용셔호오여는

외리에보중하기를바라오 류제청 근함

이라한옛거늘 춘희가시면서웃시지 다본후에 한탄하는말이

에그내한몸이 이렇케도 박복한가 가도록힘디요 넘도록 티산이라 남의며나
리노릇못하고 외디에서 제셔방만알고 즈편흔모양으로 지너면 맘에죄송할
뿐아니라 녀즈사회에비척을 당할모양이고 소천(所天)으로한여곰 부모씨근
심을씨치게하니 무슨낫호로 세상에서리요

오나나홀도리만한자 즈음잔흔가문에서천흔기성노릇한던것이 드러온다하니